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8호

발행인 : 박종우
발행일 : 2023년 3월 28일(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故김기수 지회장이 걸어온 길>

1966년 12월 9일생

1991년 8월 26일 다우케미칼실리콘 입사

2019년 10월 6일
금속노조 다우케미칼실리콘지회 설립

2022년 4월 22일 임금 및 단협 교섭 시작

2022년 10월부터 천막농성, 본사 상경투쟁
(미타결사업장 지부 집중투쟁)

2023년 1월 26일 회사, 구조조정 언급

2023년 3월 3일 31차 교섭 의견접근

2023년 3월 7일 의식불명

2023년 3월 27일 영면

사지로 내몬 다우자본

지회장은 누구보다 노동자로서 자부심과 지회장으로서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김기수 지회장은 다우자본의 불성실한 교섭으로 2022년 교섭이 2023년까지 이어지면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진천공장 천막농성, 서울 본사 상경투쟁 등 2022년 교섭 타결을 위해 부단히 애썼습니다. 어렵게 교섭은 의견접근되었지만, 고 김기수 지회장은 교섭 의견접근 4일만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우자본의 불성실한 교섭, 노조탄압이 불러온 참사입니다.

동지의 뜻 이어받아 민주노조 사수하겠습니다!

고 김기수 지회장은 금속노조 조끼가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노동자의 눈으로 진짜 세상을 볼 수 있었다고 좋아했습니다. 동지가 지키려고 했던 민주노조 끝까지 사수하겠습니다.